

대학의 인성기반 교양교육 현황 및 방향모색[※]

: ‘세계시민교육과 리더십’을 중심으로

김경아*·김수진*·윤희정**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및 분석
5. 결론 및 제언

1. 서론

우리나라는 단기간 내 괄목할만한 경제발전의 성과를 이루어 냈다. 그러나 경쟁과 성취에 치우친 사회 구조가 만연화되면서 도덕적 부채의 폐해를 곳곳에서 마주하곤 한다. 이에 인성교육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심각하게 확산되면서, 2015년 1월 국가적 차원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르면,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에 의한 연구임(NRF-2019S1A5C2A04083150).

* 제1저자.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학부 교수, 교양교육연구소 운영위원, kakim@sookmyung.ac.kr

* 공동저자. 숙명여자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 kokocoo@nate.com

** 교신저자.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학부 교수, 교양교육연구소 연구위원, yunhj@sookmyung.ac.kr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이며,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¹⁾고 명시되어 있다. 즉 인성교육은 곧 국가경쟁력의 토대가 되는 모든 교육의 기저가 됨을 천명(闡明)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이라 일컬어왔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가정환경 속에서 웃어른으로부터 생활 속의 예의범절을 습득해 왔다. 그러나 점차 핵가족화되고 입시위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대부분 인성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채 대학생 시기를 맞고 있다. 그럼에도 실제 기업이나 사회에서는 조직의 화합과 성공의 배경요인이 더 이상 학벌 등의 외현적(外顯的)인 스펙보다는 올바른 품성과 인격을 지닌 내재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공동의 합의가 모아지면서 인재 채용시, 인성을 반영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²⁾ 이에 따라 각 대학에서도 다양한 정규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성교육에 대한 다각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 교양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1년 설립된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³⁾도 ‘인성 교육 3.0’ 사업을 통해 다년간 대학생 대상 인성함양 교과목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이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현재, 분명 긍정적 효과를 견인한 측면이 있으나 그럼에도 아직까지 동기 폭행 사건,⁴⁾ 축제 성적문구 논란,⁵⁾

1) 국가법령정보센터(2020), <http://www.law.go.kr/>에서 인출함.

2) 노컷뉴스(2017), 「경기침체 속 기업들...“스펙보다 인성이 최고”」, 3월 31일자.; 머니투데이(2019), 「스펙보다 인성·성장가능성에 방점...효성 ‘인재경영’ 강화」, 9월 26일자.; 보건뉴스(2019), 「한국콜마, 2020년 신입사원 공채 “스펙보다 인성 중요”」, 10월 22일자.

3) 한국교양기초교육원(2020), <http://konige.kr/>에서 인출함.

선배 갑질 논란,⁶⁾ 단톡방 성희롱,⁷⁾ 그리고 큰 충격을 가져온 성착취물 n번방 사건⁸⁾ 등 온라인·오프라인상에 여전히 대학생 시기의 심각한 문제들이 사회적 파장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볼 때, 대학의 사명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내재적 품성 즉, 인성을 갖춘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인성교육진흥법」이 총 4차에 걸쳐 일부 개정되었는바, 개정사유에 고도의 과학기술 및 정보화 시대에서 보다 장기적이고 진정한 경쟁력은 인성에 달려있기 때문⁹⁾이라고 명시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송하석은 4차 산업혁명기의 다원화된 사회에서 인성교육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자기주도성·도전정신·리더십을 함양하고 배려와 관용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¹⁰⁾ 그러나 다각적인 사회적 담론과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대학의 인성교육은 공통된 분모를 찾지 못한 채,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구현 방법과 전략에 많은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성을 구성하는 요인과 관련하여 학자들은 다양한 견해를 제시되고 있는데, 강선보 외¹¹⁾는 관계성·도덕성·전일성·생명성·창의성·민주시민성으로, 미국의 인성교육기관인 조셉슨연구소¹²⁾는 신뢰성·존중·책임·배

-
- 4) 경기신문(2016), 「학교 동기생, 노예 부러먹듯... 상습폭행 대학생 징역 7년」, 9월 12일자.
 - 5) 쿠키뉴스(2017), 「“나 말고 뭐 먹을래” 대학 축제, 성적 문구 논란」, 5월 18일자.
 - 6) 파이낸셜뉴스(2018), 「대학생 절반 ‘선배 갑질’에 당한 적 있다」, 3월 7일자.
 - 7) 연합뉴스(2019), 「단톡방 성희롱’ 가해 대학생들 잇따라 징계받아」, 12월 27일자.
 - 8) 국민일보(2020), 「n번방 그놈 ‘갯갯’은 24세 대학생」, 5월 12일자.
 - 9) 국가법령정보센터(2020), <http://www.law.go.kr/>에서 인출함.
 - 10) 송하석(2020), 「인성교육의 방향에 대한 성찰 및 아주대학교 운영사례」, 『제3회 콜로키움 자료집』, 숙명여자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 11) 강선보·박의수·김귀성·송순재·정운경·김영래·고미숙(2008), 「21세기 인성교육의 방향설정을 위한 이론적 기초 연구」, 『교육문제연구』 30,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려·공정성·시민정신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김은진¹³⁾은 대학생 우수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자기성찰 및 자기이해·자기관리능력·대인관계능력·공동체적 세계시민의식 등을 핵심적인 인성역량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성 이전에 자기이해 및 자기성찰의 요소들이 우선시되는 경향이며 최근에는 공동체의식과 시민의식이 강조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과거의 인성교육은 도덕과 규범적 측면이 강했지만 현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은 지구촌 공동체 시대에 발맞추어 자기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건전한 시민성을 갖춘 글로벌 리더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지속가능한 인성교육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나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자기성찰이 극대화되는 성인기 초기인 대학생 시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 시기 강인한 내적 확신을 바탕으로 도덕적 부재 현상을 극복하고 품격을 갖춘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인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소양교육으로서 S대학교 교양필수 교과목으로 운영 중인 ‘세계시민교육과 리더십’ 강좌를 기반으로 표준화된 인성교육 모델 개발의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 그 첫 번째 단계로 동종계열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Focused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본 교과목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심화, 확장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주제에 대한 유사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결과를 산출해내는 탐구적 연구방법¹⁴⁾으로서, 단기간 내에 많은 양의 집중적인 정보를 효율적

12) Josephson Institute(2020), <https://josephsoninstitute.org/>에서 인출함.

13) 김은진(2017), 「대학생 인성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청소년복지연구』 19(3),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으로 수집하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주제를 해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¹⁵⁾ 이를 통해 대학 내 인성 교양교육의 위치와 궤적을 명료히 하기 위한 밑그림을 도출하고,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시대 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세계시민성과 리더십 역량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 모델의 근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대학 교양교육

일찍이 대학교육협의회¹⁶⁾는 교양교육의 목표를 “성숙한 인격체가 지녀야 할 품성,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 정보화 사회에 요청되는 판단력과 도덕성 등을 지향해야 한다. 나아가 교양교육은 제반 학문 분야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을 일깨우고 자기 표현력과 의사소통능력 등을 계발시키는 것”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이렇듯, 교양교육은 올바른 세계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대학교육의 초석이자 마중물로서 장차 졸업 후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과 역량을 다지는 중차대한 사명을 지닌다. 그럼에도 교양교육은 그 의미와 가치가 왜곡되거나 축소되어 마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도입과정이나 전공교육을 위한 예비단계 정도로 평가 절하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14) Morgan, D. L., & Krueger, R. A.(2004), 신경림·장연집·김영경·이금재·최영민·김혜영·김옥현·김영혜 옮김, *Focus Group Kit*, Sage Publications, Inc, 『포커스 그룹』, 서울: 현문사(1998년 원저발간).

15) Vaughn, S., Schumm, J. S., & Sinagub, J. M.(1996), *Focus group interviews in education and psychology*, Thousand Oaks, CA: Sage.

16)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1), 『교양교육분야 종합보고서』.

상으로 전인적 역량 함양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교양교육의 중요성이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 이는 교양교육이 더 이상 전 공교육을 위한 프롤로그(prologue)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 성숙한 글로벌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각 대학에서는 독자적인 교양교육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특성화된 대학의 이념과 인재상에 맞추어 교양교육 목표를 마련하는 추세이다. 다만 이를 구현함에 있어서는 각기 다양한 시스템과 분류체계를 갖고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면, 2011년부터 강화된 교양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경희대학교¹⁷⁾는 후마니타스칼리지(Humanitas College)의 교양대학 시스템 하에서 필수교과·배분이수교과·자유이수교과 등으로 편제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교육목표를 ‘탁월한 개인, 책임 있는 시민, 성숙한 공동체 성원 양성’에 교육목표를 두고 운영되고 있다. 또한, 건국대학교¹⁸⁾는 상허교양대학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의 궁극적인 인재상을 ‘글로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주도적으로 움직일 줄 아는 창의적 미래 인재’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초교양과 심화교양으로 나누어 ‘창의역량·종합적 사고력·성실성·소통역량·주도성·글로벌 시민의식’의 6대 핵심역량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 또한 동국대학교¹⁹⁾는 다르마칼리지 기반 하에 공통교양·학문기초·일반교양 등으로 나누어 ‘21세기 세계 시민성 함양 교양교육을 통한 도덕적 지도자-창조적 지식인-진취적 지도자 양성’을 교육목표로 삼아 운영하고 있다. 서강대학교²⁰⁾는 ‘창의적 지성, 봉사적 인성, 통합적 영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교양인성의 목적

17) 경희대학교(2020), <http://hc.khu.ac.kr/v2/>에서 인출함.

18) 건국대학교(2020), <http://sgedu.konkuk.ac.kr/>에서 인출함.

19) 동국대학교(2020), https://dharma.dongguk.edu/?page_id=18242에서 인출함.

20) 서강대학교(2020), <http://wholeperson.sogang.ac.kr/index.do>에서 인출함.

으로 삼고 전인교육원의 체계를 갖고 진행되고 있다. 끝으로, 한국의 국어대학교²¹⁾는 미네르바교양대학을 중심으로 미네르바인성·기초교양·핵심교양 등으로 ‘올바른 인성과 창의적 지성을 갖춘 세계시민 육성’에 교육목적을 두어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학 별로 본교의 특성과 건학이념에 부합하여 교양교육이 자유롭게 임의적으로 운영되는 이점이 있으나 반면 진행되는 교양교육의 통합적 시스템 구축의 측면에서는 체계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다. 실제 빈번하게 변화하는 교양교육 체계는 교수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전국 각 대학의 교양교육 관련 전담기관, 학점, 교과목 편성 등의 현황을 파악하는 일련의 연구²²⁾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는 우리나라 교양교육의 보편적 지향을 도모하고 교양교육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초교육영역·교양교육 영역·소양교육 영역으로 표준모델을 제시²³⁾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를 지침으로 대학 교양교육 컨설팅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양교육을 구현하는 시스템이나 접근방법은 대학마다 다양하지만 자립적이고 자기활동적인, 그리고 문제해결의 능력을 갖춘 생에 충실한 인간을 탄생시키는 능동적이고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과정²⁴⁾이라는 근본적인 전제에 부합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들이 수반되고 있다.

21) 한국외국어대학교(2020), <http://minerva-college.hufs.ac.kr/>에서 인출함.

22) 유기웅·정종원·박지예(2014), 『우리나라 4년제 대학 교양교육 현황 실태 분석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윤승준·권준원·김수연·김지영·주현재·최예정(2019), 『대학 교양교육 현황 조사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상임·유정완·박정원(2017), 『대학교양 기초교육백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3) 한국교양기초교육원(2020), <http://konige.kr/>에서 인출함.

24) 손동현(2015), 「교양의 의미와 교육교육의 의의」, 『제6회 교양기초교육 관련 집단 컨설팅 자료집』,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2. 세계시민교육과 리더십

본 연구의 기반이 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과 리더십’ 교과목은 S대학교에서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에 바탕을 두고 2005년 이래 점진적인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서번트 리더십이란 함께 하는 구성원들을 존중하고 미개발된 잠재역량을 발현해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성원들의 성장을 돕는 인간중심의 리더십이다. Berardi²⁵⁾는 이러한 서번트 리더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을 ‘빈 수레로는 물건을 팔 수 없다’란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다. 타인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스스로 먼저 육체적·정신적·지적·정서적 에너지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타인의 삶에 공명하는 이타적 지구촌 문제해결에 앞서 스스로 어떤 인간인지에 대한 진정한 자기성찰을 전제로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 교과목은 단순히 세계적 문제 사안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개인 스스로의 자아성찰에서부터 출발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 교과목의 내용은 크게 자기성찰을 바탕으로 하는 자기이해 부문, 관계 구축·공감과 소통·영향력·문제해결 등으로 구성된 리더십역량 부문, 세계시민윤리·사회정의와 인권·지속가능발전과 환경·다문화사회와 글로벌 파워 등으로 구성된 글로벌 시티즌십 부문의 총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방적인 교수자 중심의 강의가 아닌 워크숍 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며, 최종 성적은 P/F로 평가된다. 또한 ‘시티즌십 페어’라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매 학기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본

25) Berardi, A. J.(2003), 이덕열 옮김, *Never offer your comb to a bald man*, New World Library, 『서번트 리더의 조건』, 서울: 시아출판사(2001년 원저발간).

교과목은 다양한 지구촌 이슈에 대한 공동체적 관점을 바탕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글로벌 리더로서 스스로 어떻게 성장해갈지에 대한 인성함양의 측면에서 접근해 가고 있다.²⁶⁾

각 대학에서는 중요한 교육목적으로 세계시민을 내세우고 있으며²⁷⁾ 실제 대학 교양교육의 목표 키워드 분석에서도 ‘인격·도덕·리더십’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²⁸⁾ 그러나 정작 교양교육으로서의 커리큘럼 구성이나 공통된 함의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며 교양필수 교과목으로 편성되는 사례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실정이다. 이렇듯 우리나라 대학의 교양교육의 목적과 이에 부합되는 교과목의 편성 및 운영은 별개의 사안으로 여기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대학마다 글로벌 세계관과의 연계선 상에서 다양한 유사 교과목들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먼저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한 현황을 살펴보면, 경희대학교의 ‘시민교육’, 서울대학교의 ‘세계시민사회’, 성신여자대학교의 ‘세계시민교육과 글로벌 리더십’, 연세대학교의 ‘세계시민주의’, 한국성서대학교의 ‘세계시민되기’ 등의 관련 강좌가 운영되고 있다. 한편 리더십과 관련한 교과목으로는 강원대학교의 ‘글로벌 리더십’, 부산대학교의 ‘세계화와 글로벌 리더십’, 서울대학교의 ‘미래를 위한 자기이해와 리더십 개발’, 이화여자대학교의 ‘기독교와 세계’, ‘나눔리더십’, 전남대학교의 ‘자기 계발을 위한 코칭 리더십’, 한양대학교의 ‘휴먼리더십’ 등을 그 예로 찾아볼 수 있다.

교양교육은 특정의 전문적인 활동을 하는 직업인이기에 앞서

26) 김정아(2018),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기반한 ‘세계시민교육과 리더십’ 교양교과목의 사례 연구」, 『한국교양교육학회』 6(12), 한국교양교육학회.

27) 유기웅·정종원·박지예(2014), 『우리나라 4년제 대학 교양교육 현황 실태 분석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8) 윤승준·권준원·김수연·김지영·주현재·최예정(2019), 『대학 교양교육 현황 조사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지정의(知情意) 모든 면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삶을 살아가는 전인적 인격체로서의 인간을 형성케 해주는 교육이어야 하며, 품성을 도야하고 삶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이어야 한다.²⁹⁾ 지금도 많은 대학들이 글로벌 시민소양을 갖추고 공동체의 화합을 이끄는 인재양성 추구에 주력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시민교육과 리더십은 소양교육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인성함양 교과목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이 세계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경우 정치적 의미의 국가와 문화적 의미의 국민 사이에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적 책임의식을 가진 시민으로서 인류공통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세계시민교육이 강조되는 경향이다.³⁰⁾ 또한 전인교육 차원의 사고와 표현능력을 함양하고, 사회적 지혜와 통찰력을 고양하는 교양교육의 근본적 성격에 부합하도록 리더십 교육의 방향도 수립³¹⁾되어야 한다. 교육에서 출발하여 실천을 강조하는 세계시민교육은 개별적 실천보다는 같은 뜻을 가진 집단의 활용으로 연결될 때 실효성이 더 커지게 된다. 따라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집단적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리더십의 발현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9) 손동현·박주호·유기웅·정종원(2012), 『대학 교양기초교육에 대한 종합적 분석 연구』, 한국교양기초교육원.

30) 노찬옥(2001), 「세계 시민교육에 대한 시안적 연구」, 『시민교육연구』 33(1), 한국사회과교육학회.

31) 김인영(2018),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리더십 교육 현황과 특성 분석」, 『교양교육연구』 12(1), 한국교양교육학회.

3. 연구 방법

3.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교양교육, 세계시민교육, 리더십교육 분야의 대학 내 교육 경험이 풍부하거나 대학 외 현장 경험이 많은 동종계열 내 전문가 총 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2명의 소그룹으로 3개 집단을 구성하여 심층면접을 진행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참여자	경력	학력	직함	성별	참여자	경력	학력	직함	성별
A	49년	박사	교수	남	B	37년	박사	원장	남
C	28년	박사	교수	남	D	33년	학사	사무국장	남
E	18년	박사	교수	여	F	34년	박사	소장	여

3.2. 연구윤리 설계 및 실행

연구의 윤리성 확보를 위하여 인터뷰 실시에 앞서 본교 생명윤리위원회(IRB; SMWU-1911-HR-111)의 심의 절차를 밟았다. 이후 인터뷰 전 비밀보장과 자발적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및 중단권리, 개인정보 수집 및 결과 활용, 녹취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연구참여자를 확정하였다. 다음 인터뷰 상에서 심층적, 집약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추출된 주요 질문과 진행 방법을 사전에 메일로 발송하였고, 연구참여 동의서(consent form)에 서명을

받은 후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동일한 상황이 제공될 수 있도록 연구자가 모두 일관되게 참여하여 진행하였다. 인터뷰 시에는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가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진 모두 녹음 외에 현장 상황을 추가 기록하였다. 질문 문항은 참여자에게 최소한의 제한을 가하는 비지시적, 반구조화된 인터뷰 문항을 활용하였다. 특히 본 그룹의 크기는 향후 연구의 기초를 굳건히 하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보다 심도 깊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하고자 작은 미니그룹 인터뷰(mini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진행 형식은 연구자가 질문지에 근거하여 논제를 제시하되, 참여자들의 생동감 있고 심층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 시간적 제약을 두지 않고 충분한 자료 수집이 축적될 때까지 진행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종료 후 신속히 전사(transcripts)하여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³²⁾

각 회기의 평균 소요시간은 약 120분 내외로 유지했으며, 2020년 1월 20일~5월 6일까지 진행되었다. 다만 전 회기 모두 교내 회의실에서 오프라인 진행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사태로 인해 부득이 마지막 한 회기는 온라인 줌(ZOOM)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3.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인터뷰를 통해 구축된 질적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자료에서 드러난 중요한 의미 단위와 맥락 파악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인터뷰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출현하여, 참여자와 연

32) Krueger, R. A., & Casey, M. A.(2010), *Focus group interviewing: Handbook of practical program evaluation(3rd edi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구자 모두에게 가중치가 높다고 인식되는 내용을 도출해내는 중심주제 분석법(thematic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먼저 연구진이 함께 녹취자료와 인터뷰 스케치 및 전사자료에 대한 청취 반복과 정독을 통해 전체 내용을 파악하였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어들을 추출하고 의미 있는 구절과 문장에 표시하면서 주요 주제와 개념을 범주화함과 동시에 명명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분석

자료의 분석 결과 ‘세계시민교육과 리더십’ 기반 인성역량 함양, 교육시스템 구축, 효과적인 교육강화 방안 등의 3개 범주, 9개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4.1. ‘세계시민교육과 리더십’ 기반 인성역량 함양

‘세계시민교육과 리더십’ 기반 인성역량 함양의 범주에는 인성교육의 현주소, 인성함양을 위한 ‘세계시민교육과 리더십’, ‘세계시민교육과 리더십’ 교육의 시의적 중요성 등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4.1.1. 인성교육의 현주소

현재 우리나라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구조적 문제들이 심각하다는 점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가시적이거나 성과 위주의 교육이 아닌 학생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일관적인 교육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A: 지금 인성교육은 전무예요. 인성교육은 어디서 받느냐 자라나는 아이들이? 인성교육을 안 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자꾸 뭐 자격증 따라, 뭐 하라 하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오히려.

B: 인성교육진흥법이 나오면서 교육부에서 이제 인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공문들을 내려 보내니까 학교들마다 인성교육을 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진정한 인성교육인지, 인성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나중에 행동으로 구현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과연 수업을 하는 학생들한테 어떤 각성을 불러일으키는지 아니면 그들의 행동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추적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라는 게 목표를 세우고 어떤 성과를 얻었는가... 일관성이 결여된 상태로 교육을 한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많죠.

4.1.2. 인성함양을 위한 ‘세계시민교육과 리더십’

대학생들의 인성역량 함양을 위하여 세계시민교육과 리더십 교육의 상호 연계성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즉 세계시민교육이나 리더십 교육의 확장이 궁극적으로 인성함양을 유도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저가 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다.

C: 시민교육과 인성교육은 사실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D: 인성교육을 세계시민교육으로 함축을 보신 건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가정이, 우리 교육시스템이 못 주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진짜 사회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걸 보여주고 부모가 하는 걸 보고 배우고, 이런 경험은 참 부족하다. 사실 이런 세계시민교육이 그런 돌파구를 찾는 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가장 파급효과가 큰 게 저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보고요.

B: 인성교육을... 대학에서는 나 이외의 타인 그리고 그걸 좀 더 세계적 수준에서 남을 바라보는 그런 식의 교육을 가는 것이...

4.1.3. '세계시민교육과 리더십' 교육의 시의적 중요성

현대를 살아감에 있어 세계시민의식과 리더십에 대한 의식과 역량 함양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근본적인 교육은 바로 대학생 시기에 가장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대학 내 관련 교양교육을 통해 의식 있는 세계시민으로서의 마중물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A: 교육받은 사람으로서 단순한 기능적인 직업활동을 넘어서서 한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자질을 갖추는 것... 그런 것을 내실화시키는 일이 대학에서도 교양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B: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 국지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그런 시대를 맞게 됐는데... 시민들은 다원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들을 편회해서 보고... 적어도 세계시민이 의식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과제로 등장할 하는 거고요.

D: 선진국이 되려면 사실은 경제수준만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 사회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사실 선진국 얘기하기는... 이런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투자로 인해서 토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학생들을 타깃으로 한 세계시민 교육이 왜 가장 효율적이고 타이밍 시의적절하냐면 입시과정을 거쳐서 그야말로 인생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자기 앞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은 시점에... 처음으로 스스로 고민하고 자유의지를 갖고 이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는 시기가 이때거든요. 순수하고 열정이 있고 그래서 고민을 할 시점에 적절한교육과 경험할 기회를.

4.2. 교육시스템 구축

교육시스템 구축 전략은 패러다임의 전환, 교육내용적 측면, 교육방법적 측면 등의 3가지 하위범주로 나타났다.

4.2.1. 패러다임의 전환

본 교과목을 운영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리더에 대한 전통적이고 수직적인 개념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전 지구적인 시각에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인지를 기반으로 나의 삶과 연계선 상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는 거시적 접근이 수반되어야 함을 엿볼 수 있었다.

B: 교육의 근본 목적이 뭐죠?... 결국은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을 길러주는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인간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교육이잖아요. 글로벌 시티즌십이라고 할 때는 메가트렌드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그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C: 실제적으로는 시민교육이 여전히 국가기반에 애국적 시민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커리큘럼 자체가 이미 많이 주류화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앞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환기이고 과도기적이고 그래서 그런 국가기반의 시민성을 강조하는 시민교육으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21세기에 여러 상황들에 대한 어떤 타협이나 해결방안 모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 국가, 세계 상호연계성이라는 부분을 아주 중요시 하면서 지역적인 것에서 세계적인 모든 현상들을 연결시켜 볼 수 있고, 나의 삶이 세계에서 지구 반대편의 사람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쪽으로 점점 트랜스포메

이션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D: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뭐가 글로벌 이슈인지 이게 왜 심각한 문제고, 지금 아프리카 특정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나하고 연관되는 문제인지를 이해하고 인식하고 하는 그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E: 제가 “인터뷰해 와라” 그러면 어디의 장들만 해올 줄 알았어요. 제가 생각이 굳었던 거죠. 그런데 어디 정말 가서 30년 동안 봉사활동 했던 분들을 취재를 해 와서 정말 눈물바다가 됐던 경우도 있고 요.

F: 리더라는 개념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리더를 안 한다는 거죠. 코디네이팅도 하고 퍼실리테이팅도 하고, 밸런싱도 하고 그렇게 가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 능력이 리더십이고.

4.2.2. 교육내용적 측면

미래 사회의 리더로 성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4C(critical thinking, creativity, collaboration, communication)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자기성찰을 토대로 세계시민교육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이 담겨야 한다는 의견이 수렴되었다.

B: 4C 능력을 어디서 키울 것인가... 이거 교양교육에서 많이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교육기관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내 나름대로 세상을 설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힘을 길러주는...

F: 자기 성찰 쪽을 저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리더십이라는 거는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 학생들이 관계를 맺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죠. 그런 나, 관계, 우리라는 큰 프레임은 가져가야.

C: 세계시민교육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어떤 핵심가치라든지 꽤다고

지(pedagogy)를 강조하는 쪽으로 대학의 특성화에 맞게 만들면서, 그거를 공통교양의 형태로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셔야 되겠죠... 우선은 시민이라는 개념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17, 18, 19, 20, 21세기 거치면서 시민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역사적으로 공부하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지식을 토대로 해서... 타자에 대한 인식, 감수성, 혐오라는 부분... 그게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D: 사회나 우리 기존 교육 시스템이 못해줬던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육을 세계시민교육으로 가져가면 어떻게겠는가?

4.2.3. 교육방법적 측면

본 교과목의 학습방법적인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기존의 주입식 교육이 아닌, 특정 분야 전문가 또는 현장에서 사례가 많은 분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협업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생들 스스로 토론을 기반으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향후 교육의 효과성을 스스로 파악해 볼 수 있는 진단 도구의 필요성도 제시되었다.

B: 학생이 그 수업을 듣고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 자기 스스로 측정해 보게 하는 거, 자기 스스로 판단해보게 하면 적어도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역할은 되지 않을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보고를 보게 하는 것.

D: 다 개인주의적이고 어울리는 걸 잘 모르고 남 배려 또 협업을 하는 건 진짜 몰라요. 갈등을 겪고 해소하고 하는 과정이 우리사회가 제공 못하는 엄청난 교육효과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글로벌 이슈에 대한 특정 분야 어떤 상황을 전제로 해서 토론이 벌어지는 거죠.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지.

F: PPT 켜고 가르치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방법론을 바꿔야 된다. 어떤 특수한 영역에서 개척자 역할을 했던 분들을 잘 발굴해서 모셔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해결 중심의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슈 중심으로 뭔가를 딱 주고 문제를 해결하게끔. 그런데 공동으로 주면 그 안에서 생각하고 인성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지식도 생기고 이렇게 가는 거지... 이슈 중심, 사례 중심, 액티비티 프로젝트 중심. 모든 게 저는 이렇게 재구조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통합된 교육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틀을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4.3. 효과적인 교육강화 방안

효과적인 교육강화 방안으로는 교수자의 자질, 코워크(co-work)를 통한 확장, 실천적 경험과의 연계성 확장 등의 3가지 하위범주로 나타났다.

4.3.1. 교수자의 자질

궁극적으로 인성함양을 목표로 하는 본 교과목의 담당교수자는 기본적으로 책임감과 사명감이 전제되어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학생들과 호흡하면서 끊임없이 자기채신을 해 나가는 자발적인 노력들이 더욱 더 필요함을 엿볼 수 있다.

A: 인성교육을 잘하는 학교는... 거기에 관여하는 교원들이 사명감도 있고 또 보람을 느껴요. 그래서 굉장히 긍지를 가져요.

B: 정성만 기울여 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게하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청취를 해서 그걸 내 머릿속에서 가공

을 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줄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지는 그런 역량 같은 것들을 다른 거에 앞서서 인성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이면 좀 갖추고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학생들이 반응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 계속해서 자기 채신을 해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자기채신역량 정도는.

C: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일 때, 역량을 가지고 있을 때 훨씬 더 강좌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4.3.2. 코워크를 통한 확장

본 교과목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 측의 재정적, 구조적 지원 및 네트워크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공통적으로 강조하였다. 즉, 대학 구성원들의 공통된 합의와 비교과 프로그램 같은 제도적 지원, 나아가 재정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현장 전문가와의 코워크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개인적 차원의 접근이 아닌 조직적 차원의 접근이 전제될 때 비로소 그 효과성이 배가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다.

A: 이런 과목이야말로 워크숍이 필요해요. 그 과목을 맡은 분들끼리 모여서... 최소한도의 재정적 지원은 필요한데 그 재정적 지원은 이제 학교에서 의사결정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겠지만... 그냥 2학점짜리 한 과목 갖고 될 일이 아니예요... 정규교육 과정에서 다 커버하기가 어려우니까 비정규교육과정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열어서 하게하고 그것을 정규교육과정과 연동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D: 대학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이라는 전 조직 차원의 공감대와 중요성을 인식해서 하기 보다는 특정 교수님이나 특정 사회봉사센터나 관심을 갖고 몇몇 분의 열성과 의지로 반영이 돼서 일어나는 경우 많이 보거든요... 되게 열심히 하신 분들 보면 개인이 열심히 하세요. 대학이 같이 참여해서 서포트하고 하는 거는 극

- 히 드물더라고요... 다른 부처 관련된 분들은 협조가 안 되는 거죠.
- E: 연구실에만 있는 교수들은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협소하거든요. 시야나 안목들이. 이것도 저는 일종의 코티칭(co-teaching) 방법인데 현업에 계신 현장전문가하고 대학에 계신 교수님이 함께 코워크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런 방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 F: 중간관리자 정도나 5년차. 이 사람의 입지, 배치, 조직에서 세들다운(settle down)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팁을 더 많이 얻어요... 너무 직위적으로나 세월이나 나이가 차이 나시는 분들은 감동은 되지만 학생들한테는 별로 안 남는 듯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활발하게 어떤 영향력을 갖고 아이들하고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코워크를 하든 연계를 하든 항상 현장 자원하고, 그런 방식으로 연계했으면 좋겠습니다.

4.3.3. 실천적 경험과의 연계

리더십을 갖춘 세계시민이 되기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배운 바를 실천할 수 있는 경험의 장(場)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런 과정 속에서 글로벌 패러독스(global paradox)에 빠지지 않고 인성이 기반된 차세대 리더로서의 마인드와 역량이 함양됨을 제안하였다.

- A: 세계시민교육도 이론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부딪쳐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인성교육에 관해서는 전부터 강조하는 게 3가지인데 하나는 지적각성이고 둘째는 정서적인 감응능력 함양이고 셋째는 스스로 생각한 것을 행동에 옮기는 의지적 행동의 훈련이다.
- C: 대학생들은 아무래도 그런 실천, 참여, 행동이라는 부분이 조금 더 구체화되는 쪽으로 시민교육이라는 부분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

고 보고... 다양한 경험을 해주는 것 자체가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역량 높여주는 데 중요한 과정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봉사라는 거 되게 중요한 거고.

D: 인지정서적 영역 그 다음에 행동참여 두 가지가 반드시 조합이 일어나야 제대로 된 시민교육이 된다. 그 부분이 사실 한국사회가 너무 부족한 부분인 거죠... 대학생들은 사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시점에 봉사하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은 그 인생을 관통하는 인생 자산이라고 보거든요. 국가적으로 봐서도 국가경영에 엄청난 긍정적인 임팩트(impact)를 주는 투자라고 보는 거죠... 세계시민교육을 하면서 이게 마지막에 행동참여로 이어질 때는요... 수혜국에 도움도 주지만 그걸 통해서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사회의 리더로 키우는 그런 쪽으로 어프로치를 하면 좋겠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세계시민교육이 될 수가 있고, 그러려면 이런 마지막 단계인 현장 가서 봉사활동 하는 경험을 많이 제공해주면 그게 정점을 이루지 않겠는가?

5. 결론 및 제언

연구결과의 요약 및 추가적인 함의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대학생의 인성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 모델의 방향을 탐색하고자 발현되었다. 특히 S대학교에서 교양 필수 교과목으로 운영 중인 ‘세계시민교육과 리더십’에 기반을 두어, 본 교육과정이 대학생의 소양교육으로서의 가치를 재확인 함으로써 글로벌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 교육모델로서의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에 동종계열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지닌 총 6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3차례의

FGI를 실시하였다. 연구윤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IRB심의를 거쳐 전 과정이 진행되었으며, 모든 자료는 인터뷰 직후 세밀한 전사작업을 토대로 범주화되었다.

연구결과 ‘세계시민교육과 리더십’ 기반 인성역량 함양, 교육시스템 구축, 효과적인 교육강화 방안 등의 총 3개 범주, 9개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첫째, ‘세계시민교육과 리더십’ 기반 인성역량 함양의 범주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현 시대 인성교육의 부재에 공감하며, 이를 위해 상호 연계선 상에서 교양교육으로서 리더십과 세계시민교육의 콘텐츠가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음에 공통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러한 교육은 인간발달 과정에서 볼 때, 자신에 대한 고민과 미래 설계가 요구되는 대학생 시기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둘째, 교육시스템 구축의 범주에서는 우선적으로 전통적인 리더에 대한 개념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 교육내용적인 측면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세계시민교육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교육방법적인 측면에서는 토론과 사례 등의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이 접목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셋째, 효과적인 강화 방안으로 무엇보다도 학생들과 공감하며 자기채신하는 교수자의 사명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나타났다. 또한 교수자 개인의 노력을 떠나 대학 본부의 조직적인 인적·재정적 협업과 지원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학습한 바를 체험할 수 있는 현장경험이 수레바퀴처럼 연계될 수 있도록 교과목의 확장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해 교양필수로 운영되는 ‘세계시민교육과 리더십’의 교양 교육과정이 인성함양을 위한 소양교육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클 뿐 아니라, 지구촌 시대가 요구하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 함양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수업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에 기반한 내용의 심화

및 확장을 통해 궁극적으로 표준화된 인성교육 모델의 한 축을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교육내용이 인성함양을 위한 소양교육의 표준안으로 구축되어 대학 내 공통 교양과목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와 공유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유사 교과목을 운영하는 기관 및 교·강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수자의 역량 함양 및 수업의 전략들을 공유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 요구된다. 둘째, 정규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바탕으로 보다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활동들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학별로 이루어지는 관련 현황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한 대학 본부, 나아가 국가적 차원의 인식 변화와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교과목은 시대가 요구하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자기성찰에 바탕을 두고 출발한다. 따라서 대학생 시기 인성을 갖춘 미래의 주도적인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코칭리더십’ 등을 통해 깊이 있게 자신의 미계발된 능력과 미래의 사안들을 탐색할 수 있는 심화 과정이 연계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양적으로도 자신의 시민의식과 자질들을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지표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본 교육을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궁극적인 효과성을 배가시키기 위하여 현장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실천적 역량이 함양될 수 있는 전 지구적 경험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온라인상의 ‘세계시민교육·리더십’ 디지털 아카이브(digital archive)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선보·박의수·김귀성·송순재·정윤경·김영래·고미숙(2008), 「21세기
인성교육의 방향설정을 위한 이론적 기초 연구」, 『교육문제연
구』 30,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김경아(2018),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기반한 ‘세계시민교육과
리더십’ 교양교과목의 사례 연구」, 『교양교육연구』 6(12), 한국
교양교육학회.
- 김은진(2017), 「대학생 인성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청소년복지연구』
19(3), 한국청소년복지학회.
- 김인영(2018),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리더십 교육 현황과 특성 분석」,
『교양교육연구』 12(1), 한국교양교육학회.
- 노찬옥(2001), 「세계 시민교육에 대한 시안적 연구」, 『시민교육연구』
33(1), 한국사회과교육학회.
- 손동현(2015), 「교양의 의미와 교육교육의 의의」, 『제6회 교양기초교
육 관련 집단 컨설팅 자료집』, 한국교양기초교육원.
- 손동현·박주호·유기웅·정종원(2012), 『대학 교양기초교육에 대한 중
합적 분석 연구』, 한국교양기초교육원.
- 송하석(2020), 「인성교육의 방향에 대한 성찰 및 아주대학교 운영사례」,
『제3회 콜로키움 자료집』, 숙명여자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 유기웅·정종원·박지예(2014), 『우리나라 4년제 대학 교양교육 현황 실
태 분석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윤승준·권준원·김수연·김지영·주현재·최예정(2019), 『대학 교양교육
현황 조사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이상임·유정완·박정원(2017), 『대학교양 기초교육백서』, 한국대학교

육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1), 『교양교육분야 종합보고서』.

Berardi, A. J.(2003), 이덕열 옮김, *Never offer your comb to a bald man*, New World Library, 『서번트 리더의 조건』, 서울: 시아출판사 (2001년 원저발간).

Krueger, R. A. & Casey, M. A.(2010), *Focus group interviewing: Handbook of practical program evaluation(3rd edi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Morgan, D. L. & Krueger, R. A.(2004), 신경림·장연집·김영경·이금재·최영민·김혜영·김옥현·김영혜 옮김, *Focus Group Kit*, Sage Publications, Inc, 『포커스 그룹』, 서울: 현문사(1998년 원저발간).

Vaughn, S., Schumm, J. S., & Sinagub, J. M.(1996), *Focus group interviews in education and psychology*, Thousand Oaks, CA: Sage.

경기신문(2016), 「학교 동기생, 노예 부려먹듯... 상습폭행 대학생 징역 7년」, 9월 12일자.

국민일보(2020), 「n번방 그놈 ‘갓갓’은 24세 대학생」, 5월 12일자.

노컷뉴스(2017), 「경기침체 속 기업들...“스펙보다 인성이 최고”」, 3월 31일자.

머니투데이(2019), 「스펙보다 인성·성장가능성에 방점...효성 ‘인재경영’강화」, 9월 26일자.

보건뉴스(2019), 「한국콜마, 2020년 신입사원 공채 “스펙보다 인성 중요”」, 10월 22일자.

연합뉴스(2019), 「‘단톡방 성희롱’ 가해 대학생들 잇따라 징계받아」, 12월 27일자.

쿠키뉴스(2017), 「“나 말고 뭐 먹을래” 대학 축제, 성적 문구 논란」,

5월 18일자.

파이낸셜뉴스(2018), 「대학생 절반 ‘선배 갑질’에 당한 적 있다」, 3월 7일자.

국가법령정보센터(2020), <http://www.law.go.kr/>에서 인출함.

경희대학교(2020), <http://hc.khu.ac.kr/v2/>에서 인출함.

건국대학교(2020), <http://sgedu.konkuk.ac.kr/>에서 인출함.

동국대학교(2020), https://dharma.dongguk.edu/?page_id=18242에서 인출함.

서강대학교(2020), <http://wholeperson.sogang.ac.kr/index.do>에서 인출함.

한국외국어대학교(2020), <http://minerva-college.hufs.ac.kr/>에서 인출함.

한국교양기초교육원(2020), <http://konige.kr/>에서 인출함.

Josephson Institute(2020), <https://josephsoninstitute.org/>에서 인출함.

Abstract

Current Status and Direction Search of General Education Based on Character Education in the University

: Focusing on th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Leadership

Kim, Kyoung A & Kim, Soo Jin, & Yun, Hui-Jeong

Keywords: General education, Focus Group Interview, Character education, Global citizenship, Leadershi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rection of a general education model based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leadership'. For the purpose of collecting information, we organized FGIs in 2020. The FGI was conducted with the expert group of 6 participants from January 20th to May 6th. To extract data of detail and depth, the study implemented three series of focus group interview. The semi-structured interview items were passed through a formal review process of the institutional Ethics Committee(IRB). Furthermore, under the participants' pre-consents of recording, all recorded data were categorized through transcripts proces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the study, a total of 9 subcategories were derived from 3 areas of categories, including developing a Character competency based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Leadership', 'construction an education

system', 'Reinforcing an effective education'. In sum, this research provided that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Leadership is very meaningful education model, which can contribute on reinforcing university student's positive self-image and capability and mission as a global citizen. In turn, this investigation would lead to a discussion on the implications and possibilities of cultivating future global leaders.

이 논문은 2020년 6월 27일까지 투고 완료되어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7월 2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7월 24일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